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광복80 빛나는 발걸음, 새로운 길

보도시점 8. 7.(목) 조간 < 8. 6.(수) 12:00 >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

- 집합건물 등 이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8월 11일(월)부터** 크레딧 사용처에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를 추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6일(수)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 (**기존, 총 7개 사용처**) 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변경, 총 9개 사용처**) 기존 사용처 + **통신비, 차량 연료비**

현재 사용처 중 하나인 **공과금**을 소상공인이 **크레딧**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기 등 공과금**을 **직접 결제**해야 하나, **집합건물**은 **공과금**이 **건물관리비에 포함**되있고 **크레딧 결제처**가 **건물관리 업체**임에 따라 크레딧 사용이 불가하였다.

이에 중기부는 우선 집합건물 입주 소상공인과 크레딧 사용에 애로가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증빙자료 제출이 없는 현재 방식을 유지하면서,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작년 전기료 지원사업**에서 소상공인들이 증빙과정에서의 부담을 많이 호소했던 점을 감안할 때,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되어있는 **공과금**을 **확인하여 지급**하는 **방식**은 크레딧 집행상황을 보며 **추가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황영호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이번 사용처 확대를 통해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도 크레딧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0만원 한도의 디지털 포인트를 소상공인이 등록한 카드에 지급하는 사업으로, 공식 누리집인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가능 기간은 **11월 28일(금)까지**이나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으며, 크레딧은 **’25년 12월 31일(수)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담당 부서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소상공인경영안정과	책임자	과 장	안원호	(044-204-7821)
		담당자	사무관	김태선	(044-204-7853)
			사무관	이규화	(044-204-7862)
			주무관	박원택	(044-204-7294)
			주무관	전보람	(044-204-786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개요**

□ **사업개요** (예산 : 1조 5,660억원)

○ **(개념)** 소상공인이 **정해진 사용처***에 5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포인트**를 **신용·체크·선불카드**에 지급

* 전기・가스・수도요금, 4대보험료, 통신비, 차량 연료비

□ **지원대상**

○ **(개업일)** '25.5.1.(추경 확정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

○ **(활동 여부)**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국세청 DB 기준)

○ **(매출액 기준) '24년 또는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원 이하**

○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

□ **지원절차**

① **(대상선정) 소상공인**이 **크레딧**을 **신청** → 소진공이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카드사*에 명단 제공

* 참여 카드사(9개) : 국민, BC, 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② **(카드등록)** 소상공인이 **기존 보유**한 **신용·체크카드**를 **등록**하거나, 신용·체크카드 이용이 어려운 경우 **카드사**에 **선불카드 발급 요청**

③ **(크레딧 차감)** 소상공인이 **등록된 카드**로 지정된 사용처 항목을 결제 시, 한도 50만원 내에서 **크레딧 자동 차감**

□ **지원실적** ('25.8.4.기준)

○ **(접수·선정)** 2,660,752개사 접수 / 2,157,956개사 선정